

예비체육교사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성 탐색

신민혜¹, 김승용^{2*}

¹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 초빙교수, ²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조교수

Exploring the Direction for Strengthening the Educational Competency of Prospectiv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Min-Hye Shin¹, Seung-Yong Kim^{2*}

¹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예비체육교사가 함양해야 할 역량에 대해 상위 및 하위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예비체육교사가 함양해야 할 역량 모형을 도출하였다. 계층분석(AHP)에는 2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연구의 결과, 대인관계역량 .213, 자기관리역량 .203, 전공역량 .174, 전문학습 및 기초교양 .163, 도전의식역량 .137, 창의역량 .110의 가중치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 학부모, 동료교사 등과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전공지식 역량이 기타 역량보다 예비체육교사의 성취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끝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 대학에서도 역량 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화된 역량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해당 진로에 대한 진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역량, 계층분석, 체육교육, 교과과정, 예비체육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elimin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between upper and lower levels. Therefore, after literature analysis and examination by experts, a model of competence should be developed by prelimin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Literature review was done at first to filter out the related factors from previous studie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followed with other 23 experts.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s: Competence for Personal Relations is placed at the top with the weight of .213, competence for Self Management follows with the weight of .203, competence for Major is placed at third with the weight of .174, competence for Studies & Liberal follows with the weight of .163, and competence for Sense of Challenge is placed with the weight of .137, competence for Creativity follows with the weight of .110.

Key Words : competency, ahp,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prelimin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orresponding Author : Seung-Yong Kim(dragonkim@kyonggi.ac.kr)

Received September 24,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Revised October 13,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1. 서론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첨단 기술의 고도화는 노동 시장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학습자 스스로가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1,2].

역량에 대한 중요성은 1990년대 말 OECD의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y: 이하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였고, 유럽연합과 미국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 and University)[3-5]에서도 핵심 역량을 범주화하여 발표하였다. 역량 중심의 교육은 최초 ‘직업’ 분야에서 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진행된 OECD의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이에 대한 한계점을 바탕으로[6] 진행된 DeSeCo 프로젝트의 후속 연구로 ‘Education 2030’를 통해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 및 발표하였다[7]. 이미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역량 중심의 교육이 적용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도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과 형식의 중요와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다[8,9].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이 교육, 연구, 봉사로부터 현재는 교육, 연구, 봉사, 진로로의 변화 및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학문적 개념인 “교육”도 직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이 가미되기 시작하였다. 즉, 수요자가 요청하는 교육으로의 변화와 맞춤은 일반화된 것이다[10]. 이러한 대학의 실천적 지식으로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지향과 그 변화는 인재 육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 현재적 개념이 바로 역량중심의 교육인 것이다.

역량에 대한 연구들[11-13]은 이미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어져 왔으며, 현재의 교육과정 개혁의 흐름을 주도 및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학교체육을 통해 학습자가 함양해야 할 인성을 포함한 역량 함양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한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역량 지향에 대한 필요는 당연해 보인다[14]. 이에 더해 교과과정상의 “기능”, “지식”, “태도”의 통합적 반영과 학습자 성취를 위한 바람직한 목표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체육교사 양성을 위한 체육교육학과 교육과정상의 지식, 기

능, 태도를 포함한 필요 역량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체육교사가 함양해야 할 교육역량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3-5,7]을 통해 확인되는 역량에 대해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재분류, 검토 후 최종 상위 및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대학 체육과 교수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통해 우선적 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체육교육학과 교과과정에서 체육교육 관련 지식(이론)과 체육 실기 수행을 위한 체력 및 기능, 그리고 다양한 교양 지식을 포함한 역량의 함양을 통해 학교 교육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실천인을 양성하는데 기초 토대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역량 중심의 대학 체육 교과과정으로의 변화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문헌 분석 및 전문가 협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3-5,7]에 근거한 핵심역량의 범주와 하위 요인에 대한 분류가 진행되었다. 먼저 문헌 분석의 과정을 통해 최초 도출된 상위 및 하위 요인에 대해 교육 경력 15년 이상의 현직 체육교사 1인, 스포츠교육학 교수 2인이 참여한 전문가 협의의 과정을 통해 역량의 재분류, 각 범주별 포함되어야 할 하위 요소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6개의 상위 요인과 18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협의는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3회 실시하였다.

2.2 계층분석

본 연구는 예비체육교사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 역량에 대한 중요도를 계층분석(AHP)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계층분석 모형을 통해 계층의 구조를 적용 및 쌍대비교를 통한 원 자료(raw data)를 도출하였다[15]. 이후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통해 상대적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때 전문가 판단 상의 오차 범위를 검토하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e: 이하 CR)을 확인함으로써 요소의 우선적 순위를 도출하였다[16]. 또한 계층분석을 통해 확인된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이하 CI)를 산출

함으로써 예비체육교사가 함양해야 할 역량의 우선적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2.3 연구 참여자

계층분석의 참여자는 유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에 의해 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대학 체육학과 교수(스포츠교육학 전공) 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다.

2.4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계층분석법(AHP) 프로그램 Expert Choice ver.11.5를 활용하여 대학 예비체육교사들이 함양해야 할 핵심역량 및 하위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 및 분석하였다. 일관성을 검증하고자 일관성 비율(CR), 일관성 지수(CI)를 산출한 결과 기준 값인 .1이하로 나타나 일관성이 충족된 것[18] 으로 판단되었다.

3. 연구 결과

3.1 교육역량 계층도

Table 1. Analytical hierarchy tree for competencies and sub-components

Competency	Sub-components
General Studies & Liberal arts	liberal arts literacy
	Social science literacy
	Science literacy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literacy
Sense of challenge	Leadership
	Innovation
	Initiative
Self-Management	Rational thinking
	Career development
	Emotional control
Personal Relations	Conflict resolution
	Community spirit
	Empathy & Communication
Major	Physical education techniques
	Physical education theory
Creativity	Problem finding & solving
	Critical thinking
	Autonomy

계층분석에 앞서 실시된 문헌 및 전문가 검토 결과, 역량 요인으로 전문학습 및 기초교양, 도전의식, 자기관리, 대인관계, 전공, 창의 총 6개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요소는 18개로 도출되었다. 이후 예비체육교사의 교육역량에 해당되는 요소 간 우선적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층분석을 통한 가중치를 확인하였다. 다음의 Table 1은 역량 및 하위 요소의 계층도를 보여준다.

3.2 상위 요인 가중치 결과

상위 요인 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213)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자기관리(.203), 전공(.174), 전문학습 및 기초교양(.163), 도전 의식(.137), 창의(.110)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은 대인관계(1순위) 및 자기관리(2순위) 역량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도전 의식(5순위) 및 창의(6순위) 요인에 대해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Table 2.

Table 2. Competencies in the hierarchical order

Competency	Weight	Rank	CI & CR
Studies & Liberal arts	.163	4	All of the competencies have CI < .1 CR < .1
Sense of challenge	.137	5	
Self-Management	.203	2	
Personal Relations	.213	1	
Major	.174	3	
Creativity	.110	6	

3.3 하위 요소간 가중치 결과

3.3.1 전문학습 및 기초교양 역량의 하위 요소

상위 요인의 가중치 결과를 적용하여 전문학습 및 기초교양 역량 요소의 결과, 인문적 소양(.345)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ICT 활용 능력(.338), 사회과학적 인식(.162), 과학적 인식(.155)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일관성 비율(CR)은 .01로 나타나 일관성을 충족하였다.

3.3.2 도전 의식 역량의 하위 요소

도전 의식 요소의 결과를 살펴보면, 리더십(.576)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자기주도성(.293), 혁신(.131)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도전 의식 요소의 일관성 비율(CR)은 .01로 나타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3.3.3 자기관리 역량의 하위 요소

전문가들이 판단한 자기관리 요소의 중요도 결과는 진로개발(.683)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합리적 사고(.275), 절제(.042)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일관성 비율(CR)은 .01로 나타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3.3.4 대인관계 역량의 하위 요소

대인관계 요소의 결과, 공감/소통(.428)과 갈등 해결(.424)이 약간의 차이로 1-2순위에 자리매김하면서 공동체 의식(.148)은 가장 낮은 순위로 확인되었다. 대인관계 요소에 대한 일관성 비율(CR)은 .01로 나타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3.3.5 전공 역량의 하위 요소

전공 역량 각 요소의 결과를 보면 운동실기(.505), 체육이론(.495)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각 요소가 비슷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비율은 .01의 값으로 확인되었다.

3.3.6 창의 역량의 하위 요소

창의 요소의 결과를 보면 문제해결력(.667)이 가장 중요한 순위를 차지하였고, 비판적 사고(.168), 자율성(.165)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일관성 비율은 .01로 나타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3.4 전체 하위요소 가중치 결과

전문가들이 판단한 전체 하위요소의 복합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역량의 하위 요소에서 상위 순위(1위-5위)를 차지한 요소는 공감/소통(.132)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다음으로 갈등해결(.125), 진로개발(.105), 리더십(.100), 공동체 의식(.0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하위요소에서 후순위(14위-18위)에 자리매김한 요소를 살펴보면, 사회과학적 인식(.021), 과학적 인식(.019), 비판적 사고(.016), 자율성(.012), 혁신(.0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역량 상위 요인 중 상위 순위에 포함된 각 요소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요소에 대한 일관성 비율(CR)은 .02의 값으로 나타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Table 3. Weight & rank of sub-components

Sub-components	Weight		Rank
	Local	Global	
liberal arts literacy	.345	.048	9
Social science literacy	.162	.021	14
Science literacy	.155	.019	15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literacy	.338	.044	10
Leadership	.576	.100	4
Innovation	.131	.010	18
Initiative	.293	.033	13
Rational thinking	.275	.059	8
Career development	.683	.105	3
Emotional control	.042	.035	12
Conflict resolution	.424	.125	2
Community spirit	.148	.073	5
Empathy&Communication	.428	.132	1
Physical education techniques	.505	.067	6
Physical education theory	.495	.060	7
Problem finding & solving	.667	.041	11
Critical thinking	.168	.016	16
Autonomy	.165	.012	17

4. 논의

본 연구는 예비체육교사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의 상위 및 하위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인관계' 역량을 예비체육교사가 함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공감과 소통을 보다 중요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역량의 하위 요소인 '공감 및 소통'과 '갈등 해결' 역시 우선적 순위의 결과를 나타내면서 결국 대인관계 역량은 바람직한 사회관계를 형성 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인식할 때, 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단위 학교 및 집단 환경의 발전이 담보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체육교사로서의 해당 진로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역량의 확보 뿐만 아니라 강화가 필수적임을 판단한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예비체육교사로서 다양한 문제 상황과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탐색과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동료교사를 포함한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이 전제된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

다. 또한 1순위의 중요도를 보여준 대인 관계 역량의 함양과 강화를 위해서는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는 체육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제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 우선적 순위인 '자기관리' 역량 하위 요소인 '절제'는 신체적, 정신적 관리와 조절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전공' 역량과도 연계되는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전공 역량의 하위 요소인 '운동실기'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신체와 정신의 절제와 합리적인 사고가 필수적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기 관리' 역량과 '전공' 역량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공 실기의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력 및 체형 유지가 필수적이기에 자기 관리 역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18,19].

특히 자기관리 요소 중 '진로개발(.683)'의 복합가중치 결과, 3순위를 기록하면서 해당 진로(체육교사)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체육학과 교과과정의 형식과 내용에서 '체육교사 역할 실습'과 같은 교과목의 개설을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지식(실기, 이론)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물론 진로개발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해당 진로와 연계된 특강과 상담의 과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10]. 상담의 전 과정을 통해 진로 연계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고, 해당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 또한 향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전 의식 역량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점은 상위의 순위에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후순위(5순위)를 차지하면서 기대한 결과와는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이미 '체육교사'로의 정해진 진로에서 발현될 수 있는 도전 역량(의식)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전문가들이 판단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해당 전문가들은 도전 의식이 보다 다양한 진로 분야로의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인식한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2].

'전공' 역량(3순위)과 '전문학습 및 기초교양' 역량(4순위)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3위, 4순위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은 체육 전공에 대한 지식(이론)과 기능의 습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체육교사로의 진로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시험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 및 합격여부[20]에 따라 실기 및 면접, 이후 최종적으로 교사로의 연계가 가능하기에 체육 전공 내용의 습득(이론 및 실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초 및

전문 학습, 그리고 교양 교육에 대한 습득 또한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2]. 이에 더해 대학의 선발, 교육, 진로의 전 과정에서 교양 및 전문 지식의 습득과 역량 함양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한 연구[10]와 같이 대학 체육 교육에서도 전공 지식(이론과 실기), 전문학습 및 기초 교양 교과목에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문제 탐색을 통한 문제 해결력의 신장과 고차원적 사고의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창의' 역량은 가장 낮은 후순위(6순위)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창의 역량을 단지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내용에 대한 발견 및 지향',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이라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도전 의식에서 예측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미 설정된 진로(교사)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지향 즉, 창의 역량에 대한 중요도를 다소 낮게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배타적 지식의 보유보다는 온/오프라인 상의 공유된 지식의 적용과 활용에 더해 창출이 더욱 중요하다[21].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도 학습자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하위 요소의 결과는 대인관계 역량의 요소로 소통/공감(1순위), 갈등 해결(3순위) 그리고 도전 의식 역량의 요소인 리더십(2순위)의 결과이다.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현 세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러한 결과는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 및 행정가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각 역량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

5. 결론

교육부가 제시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및 국외의 교육과정에서도 이미 역량 기반 교육으로의 전개 및 지향은 알려진 바이다. 개정 교과과정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가 담보된 해당 목표, 방법, 내용,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부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성취기준과 내용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제공자인 교사가 해

당 역량교육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차이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역량의 내용과 형식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체육교사가 함양해야 할 교육역량을 알아보고자 역량 확인 및 우선적 순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예비체육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해당 우선적 역량의 내용과 형식의 강조를 통해 미래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주도의 역량 중심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에서도 역량 중심의 교육을 통해 보다 세분화 및 전문화된 역량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해당 진로로의 진출 또한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S

- [1] K. H. Lee. & S. H. An. (2014). A Study on the Educational Tasks for Revitalizing the Competency-Based Education.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1), 141-173.
UCI : I410-ECN-0102-2014-300-002063398
- [2] M. H. Shin. & N. K. Cho. (2019). Competency-based curriculum for the expansion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spectrums in the dance department. *Research in Dance Education*, 20(2), 208-224.
DOI : 10.1080/14647893.2019.1584174
- [3] OECD. (2003). *Schooling for tomorrow: Think Scenarios, Rethink Education*. Paris: OECD.
- [4] European Commission. (2000). *A memorandum on lifelong learning*. Brussels: EAEA. 11.
- [5]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2006). *Shared futures: Global learning and social responsibility, liberal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The arts of democracy*.
[http:// www.aacu.org/SharedFutures/globalcitizenship /index.cfm](http://www.aacu.org/SharedFutures/globalcitizenship/index.cfm).
- [6] S. E. Lee & K. H. So. (2019). Analysis of Change Trends on OECD's Competencies Frameworks for Curriculum Redesign: Focused on "Education 2030",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7(1), 139-164.
UCI: I410-ECN-0102-2019-300-001111113
- [7]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osition Paper.
- [8] K. P. Kim.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chool Education. *Journal of peaceology*, 6(2), 62-78.
UCI : I410-ECN-0102-2018-300-000242946
- [9] Y. N. Lim, S. Y. Jang. & H. J. Hong. (2017). An Analysis of Curriculum Leading Teachers' Opinions on Competencies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its Implication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3(1), 5-33.
DOI : 10.29318/KER.23.1.1
- [10] M. H. Shin. (2017). Exploration of Coordination among Admission,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for Sustainment of Dance Department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63(1), 67-85.
DOI : 10.16877/kjds.63.1.201703.67
- [11] K. H. So. (2007). 'Competency' in the context of schooling: It's meaning and curricular impli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3), 1-21.
UCI : I410-ECN-0102-2009-370-000105256
- [12] K. W. Lee. & Y. K. Jung. (2017). A reflective review on constitution of content system in 2015 revised subject curriculum: Focused on key concept, generalized knowledge, and skill.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6), 597-622.
DOI : 10.22251/jlcci.2017.17.16.597
- [13] J. Y. Lee, K. H. Lee, B. C. Lee & E. A. Ka. (2017). Case analysis of competency-based school curriculum design and implementation: Focused on curriculum research school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 1-30.
DOI : 10.29221/jce.2017.20.1.1
- [14] C. K. Nam. & M. H. Shin. (2021). Local Sports & Physical Education in the Pandemic and/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84, 9-21.
DOI : 10.51979/KSSLS.2021.04.84.9
- [15] Saaty, T. L. (1977). A Scaling method for priorities in hierarchical structures.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15(3), 234-281.
DOI : 10.1016/0022-2496(77)90033-5
- [16] Saa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lanning, priority setting, resources allocation*. New York: McGraw.
- [17] Wind, Y. & Saaty, T. L.(1980). Marketing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7, 641-659.
DOI : 10.1287/mnsc.26.7.641
- [18] H. J. Park, I. S. Lim, & J. H. Lee. (2014).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of Students Majoring in Dance and their Binge Habit. *The Korean Journal of Dance*, 72(1), 117-134.
UCI : I410-ECN-0102-2014-600-002019253
- [19] H. S. Shin. (2008). The Relations among Dancers' Restrained Eating, Eating Disorder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Dance*, 56, 77-91.
UCI : I410-ECN-0102-2009-680-019954182
- [20] K. B. Cho. & S. Y. Kim. (2021). Trend Analysis of Sport Pedagogy Sub-Domain in Secondary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4), 339-347.

DOI : 10.14400/JDC.2021.19.4.339

- [21] M. H. Shin. (2016). Career Education Curriculum and Management for Students' Career Diversification and Segmentation in the Dance Department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61(4), 13-27.

DOI : 10.16877/kjds.61.4.201609.13

신 민 혜(Min-Hye Shin)

[정회원]



- 2009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졸업(무용학사)
- 2012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석사)
- 2015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체육학박사)
- 2021년 4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체육

교육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교육과정 및 교수법, 교사교육

· E-Mail : osmho78@wku.ac.kr

김 승 용(Seung-Yong Kim)

[정회원]



- 200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체육학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체육학박사)
- 2018년 3월 ~ 2019년 8월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조교수
- 2019년 9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교육

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 E-Mail : dragonkim@kyonggi.ac.kr